

# 희귀식물 개화·결실 매년 어떻게 변화하나

다도해·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카메라 52대 설치

우이도 사구·괭이갈매기 이동 등 생태계 변화 관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도해해상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연생태의 계절적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타이머를 이용해 일정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식물계절 관찰 네트워크(Phenological Eyes Network)' 시스템을 적용해 희귀종의 개화·만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사구로 유명한 우이도에도 2대의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은 2011년

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하이어(멸종 위기종 2급), 덕유산국립공원의 광릉요강꽃(멸종위기종 1급) 등의 자생지에 8~10대의 카메라를 설치, 개화 및 결실시기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히어리는 올해 1일 꽃이 피기 시작해 8일 만개했으며, 광릉요강꽃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꽃이 피기 시작,

20일께 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우리나라에서 600여 개체밖에 없어 이 같은 조사가 한국 자생식물 연구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국립공원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내장산국립공원의 단풍 절정 시기도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관찰, 내장산 단풍이 지난해 10월29

일에서 11월5일까지 절정을 보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사구로 알려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도 모래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쪽 양단에 돌출한 2개의 반도가 소의 귀 모양과 비슷해 우이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21km에 이르는 해안선에 넓게 분포한 모래사장으로 유명하며, 연구원은 이 카메라로 사구 모래밭이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도서지역에서 집단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이동시기가 어떠한지 등을 관찰하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권혁균 원장은 "카메라 52대가 설치된 이번 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지속적이뤄지면 국립공원 등의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전남, 전국 첫 태양광 에너지농장 인기

마을회관·창고 등 옥상에 설치 전력생산·판매

전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너지농장사업이 농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축사·창고 등의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30kW(330.57m<sup>2</sup>/사간당)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매달 15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중 음자금 상환,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약 70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전남도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농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올해 농가 50곳을 목표로 지난달 까지 122곳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1차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0곳을 사업적격자로 선정했다.

현재 현지 확인 중인 농가 13곳을 포함하면 태양광 시설 설치 농가는 올 상반기만 모두 40여 곳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장성군 동화면 소재 (주)탑선, 농협중앙회,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협상과 고령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 소득을 옮길 수 있는 효자 산업"이라며 "농어업인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예산 확보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400만원으로 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재활용실적 허위업체 EPR제도 참여 제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4일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재활용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EPR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

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 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PR 제도의 대상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등 포장재 4종,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수산물양식용)부자 등 제품 5종이다.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

출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징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지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갈실 20개 대출 49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입금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2평 30m 도로집, 토지전용 외로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횡성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을 시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FAX) 223-1772 휴 011-602-2323

(광주은행 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근처)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이 되겠습니다.

★ 아무거나 전화 주십시오★

☎ (FAX) 383-5221 휴 011-609-5221

(상무지구 아버들 김자정 1층)

광주·전남 환경이야기 <3>

그린이 대세다. 대세를 넘어 그린이 넘쳐나 솔직히 괴로감까지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다. 녹색금융, 녹색농업, 그린캠퍼스 등 심지어 일부 기업은 모든 활동을 그린으로 색칠하여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됐다.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에코머니'라는 현금성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에코머니는 공공요금 납부, 기부 등 다른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또 기후변화 주간이 있는 4~5월을 맞아 그린카드의 공익성과

인센티브를 알릴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후변화주간이 있는 4월, 가장의 달 5월에는 그린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한 특별 이벤트가 많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경제인구 2500만명의 10%만 움직여도 시장의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린카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녹색제품 생산규모가 늘어나고 녹색기술개발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자구역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순환을 시장 스스로 갖춰 가는 것이다.

그린카드의 '보이지 않는 손' 기능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린카드는 올 3월말 현재 180만개가 발급되어 있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알릴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후변화주간이 있는 4월, 가장의 달 5월에는 그린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한 특별 이벤트가 많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경제인구 2500만명의 10%만 움직여도 시장의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린카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녹색제품 생산규모가 늘어나고 녹색기술개발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자구역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순환을 시장 스스로 갖춰 가는 것이다.

그린카드의 '보이지 않는 손' 기능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린카드는 올 3월말 현재 180만개가 발급되어 있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산강환경청장 '그린 아카데미' 강연

양과 나눔 가치를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실상을 소개해 녹색성장(Green-Growth)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날 그린 아카데미는 사업법인 수단이란 입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제현 영산강환경청장이 강사로 직접 나서 '아프리카에서 찾은 참 행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청장은 이 강연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아프리카 수단에서 겪은 체험담을 토대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사

랑과 나눔 가치를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로 극심한